

◆ 학생문예운동 점검과 역할규명을 위한 시리즈(完)



학생문예운동론

학생문예 운동의 계승과 발전

우리가 흔히 쓰는 '선전선동'이란 개념과 '문화선전(이하 문선)'의 개념차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선전선동'이 갖는 개념 속에 '문화선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듯하다.

문화예술이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선전선동의 내용)은 기존의 다른 방식의 선전선동에 비교는 사뭇 다르다. 문화예술작품은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깊이 있게 감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본성인 '인간화'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요구되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예는 인간에게 복구하고, 또한 그 문예는 '산 인간'을 형상화 함으로써 대중을 '사상화'적으로 교육하고 양화하여 당면 변혁의 시기에 근로대중이 혁명과 새사회 건설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하는 값있는 작품을 한다. 이는 다른 방식의 선전선동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선전(선동)의 활동방식과 자기체계를 독특히 편제하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문화선전활동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일상사업 속에서 내려보고자 한다. 일상적인 문예사업으로 공연활동과 농촌활동 문

화선전을 들 수 있는데, 그간 공연활동은 순한 경험에서 많은 성과와 오류를 갖게 되었다.

성공적인 측면으로 예술적 역량의 축적과 문예계의 안정적인 자기 활동공간의 확보, 화우들의 자주적 지향의 발로로 학생회 단위에서 뛰어세워졌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반면 많은 부분 오류로 나타나는 것은 문예창작의 과정에 문예계, 회원의 전면적인 창작열정의 고양을 방지하는 점, 창작의 소재와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정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문건이나 투쟁방향, 정세 등을 토론훘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상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생활요소를 밀도있게 하면서 그 속에 정치적 문제를 그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매해 이루어지는 농촌활동 속에서 문예일꾼이 자기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본반활동'과 '농촌문화선전'이다. 기본에 두는 것은 '본반활동'이나 이글에서는 문선활동만 평가해보고자 한다. 올해 순창군 농촌에서 성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농민문예일꾼과 청년학생문예일꾼의 결합이다. 이는 문예의 주인(근로대중)간의 결합으로 값진

성과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에 농민문예일꾼과 결합없이 이루어진 학생문예일꾼

대'를 조직하였다. '5가대'는 기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전선동을 계승혁신하여 '연회', '선동', '선전'의 세 영역을 확보한다. 연회는 탈, 노래를 중심으로하여 연기를 결합하는 활동이며, 선동은 풍물패를 중심으로

남대협'의 '5가대'의 성과를 계승혁신하여 통일투쟁 속에서 문예일꾼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자기 단위의 고민이 통일선동대를 국토순례대행진의 한 대열에 서게 하는 문예일꾼의 독특한 결합을 낳았다.

장르활동 보장한 '통일문선대' 등 모범사례 배출 활발한 선전위해 학년별 창작체계 이뤄야

의 농촌활동 속에서의 창작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서 미술, 공예,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스프레이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 '5가대'는 투쟁조직과도 긴밀히 결합하여 '전술'적인 운동을 극대화하고 문예가 당면 투쟁에 힘있게 결합하는 모범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투쟁조직과 문예조직과의 결합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투쟁조직과 문예투쟁조직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계를 노정하였고 그러함에도 가두 투쟁에서 대중결집과 선전선동의 강요적인 힘을 획득하였다. 가두에서 간단한 촛광 등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을 투쟁의 대열에 적극 동참시키고 당면의 정세를 압축하여 묘사함으로써 인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획득했던 남대협'의 '5가대'는 90년 '통일문화선동대'로 계승된다.

하여 진행하고, 선전대는 미술, 공예,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스프레이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 '5가대'는 투쟁조직과도 긴밀히 결합하여 '전술'적인 운동을 극대화하고 문예가 당면 투쟁에 힘있게 결합하는 모범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투쟁조직과 문예조직과의 결합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투쟁조직과 문예투쟁조직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계를 노정하였고 그러함에도 가두 투쟁에서 대중결집과 선전선동의 강요적인 힘을 획득하였다. 가두에서 간단한 촛광 등을 통해 지켜보는 시민을 투쟁의 대열에 적극 동참시키고 당면의 정세를 압축하여 묘사함으로써 인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획득했던 남대협'의 '5가대'는 90년 '통일문화선동대'로 계승된다.

통일문화선동대는 다른 통일선대의 생활적 모범으로 설 만큼, 낮에는 열심히 문예로 투쟁하고 밤에는 창작하는 기풍을 세워 하루에 1~2시간 자면서 통일투쟁을 힘있게 끌고 나갔다.

가두에서 풍물을 치며 간단한 촛광, 놀이, 노래의 물결을 이루며 범민족대회장에 입성한 통일문화선동대는 통일선동대의 투쟁의 성과를 모두 모아 창작적 재부로 환치시켜 범민족대회를 수놓았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

통일선대의 조직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교양의 부족과 역량있는 지도일꾼을 통문선대로 편제, 운용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통일선동대로 일찍 조직화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내부체계와 장르의 활동을 보장했고, 총 187명의 통일선동대를 꾸

림으로 해서 각 장르별 활동을 보장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각 장르별로 기능적인 창작을 함으로 신속히 통일투쟁을 사상미학적으로 고양할 힘을 모았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함께 모든 애국적 역량이 하나로 투쟁했던 5월투쟁에서의 가두문선투쟁을 간단히 평가하자면, 모든 단위의 문예패가 자기 장르를 무기로 투쟁했던 점, 각 단위와 교에서 문예투쟁을 꾸려낸 점, 이것이 가두로 나가면서 시민과 함께 결합한 점 등이 큰 성과로서 남는다.

반면 한계점으로는 문선활동이 일상적 창작체계에 기반하지 못하였고 정세에 맞는, 질 높은 창작정책의 부재로 창작물의 한계

- ### 글심는 순서
1. 문예선전활동의 점검과 발전방향의 모색(좌담)
 2. 문예사상의 변천과정과 현재적 고찰
 3. 자주적 대중문예조직론에 대하여
 4. 장르문예활동을 제기하며
 5. 학생문예운동의 계승과 발전

의 성과를 92~93년 투쟁을 맞이하는 우리 문예일꾼은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

무엇보다도 문예일꾼은 다음의 5가지를 틀어쥐고 문선활동의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치조직과 문예조직의 유기적 결합이다. 문예일꾼은 정치조직 속에 있으면서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적 창작체계의 구현, 즉 항상 창작을 중심으로 틀어쥐고 고민하여 어떠한 시기에 도 창작을 통해 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한다.

셋째, 단위에서 학년별 창작체

계를 내온다. 학습, 생활, 투쟁의 공동체를 창작으로 잘 묶어내고, 가장 모범적으로 강요력한 단위가 되고 있는 학년별 창작체계를 내와야 할 것이다.

네째, 창작과정과 정치적 사안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창작체계를 꾸려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의 '문선'을 작품으로 옮기는 '낡은 창작방법'을 혁신하고 '자주적 인간전형'을 주위의 사람 속에서 발굴하고 다듬는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굳혀나가야 할 것이다.

정석화
(서충원 문화국)



민중의 한 노래하는 민요연구회

'홀려라 내 온갖 서러움, 더러운 내몸과 수고, 홀려라 내 온갖 서러움, 보리밭길 홀려라'

광주항쟁이후의 민중들의 한과 슬픔을 담은 '광주전'의 애절한 한곡리소리가 민요연구회의 첫발이었다. 전통이란 미명하에 관제화되고 박제화된 민요를 지양하고 우리들 삶에서 민중들의 탄식과 외침, 그리고 신명의 소리였던 민요를 찾아나가는 민요연구회는 지난 84년 올바른 민요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결성되었다.

들 통해 쌓아올린 형식과 민중들의 고통스런 싸움의 내용을 형상화한 민요판 '아들아, 이젠 말하리라'는 민요 연구회의 활동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한국곡조지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장을 닫고 미국으로 도망친 후의 처절한 피코 노동자들의 미국투쟁을 노래극으로

'파업전야'와 함께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민족문화운동이 아직 장르별로 분화·발전되지 못했던 결성 초기와 달리 현재는 명확히 민요운동으로서 위상이 정리되어 가고 있으며 이 위상에서 창작과 보급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보급활동은 주로 현장공연과 테이프제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장한 우리문화의

작품 '아들아 ...' 민족예술상 수상 현실에 맞는 민요 창작·발굴에 힘써

그간 민요연구회는 84년 7월부터 88년 12월까지 34회의 '민요의 날' 행사를 주관해 왔으며 이 '민요의 날'은 전통민요의 재발굴, 그리고 우리시대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재편된 창작민요의 발표와 보급의 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의 노력

공헌한 '아들 ...'은 민요가 어떻게 이 땅의 민중들의 고통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민요 연구회의 계속된 고민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으로 민요연구회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가 주최하는 '제1회 민족예술상'을 장산꽃매의

공동체성을 생활속의 노래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강습을 계절별로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민요연구회는 10여명의 회원에 비해 사업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피코 노동자의 투쟁을 그린 '아들아 이젠 말하리라'

대학생들의 가요문화에 대해 민요연구회 회원인 조정래씨는 "대중가요가 아닌 민중가요마저도 발라드나 댄스, 군가풍의 음악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이 음악들은 우리의 정서나 양식에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시대 민중들의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겠지요. 좀더 우리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에 뿌리를 둔 노래문화를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바람직한 이 시대 민중가요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수정記者)



박토에 뿌리내린 민초들의 생명력

반별로 진입하게 하였고, 이 목적 함의를 부정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를 일약 스타덤으로 끌어올린 이 작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령한 삶이 되어 있더라'는 바이런의 저 이름있는 레토릭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속성재배 방식에 입각한 있는 평화의 소산은 아니다.

그것은 한 작가가 독창적인 역사해석과 사상적 관점, 생동하는 인물군과 복합적인 작품구성을 포괄하여 우리 문화사에 하나의 에포크를 이룩한 야심작을 완성하기까지 그러한 성숙을 예비한 전작의 작품활동의 궤적이 없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출간된 중·단편집 '박

토의 혼'은 바로 그 증빙에 해당한다. 이 소설집은 그의 전·중기에 발표된 9편의 소설로 묶여져 있으며, 이는 그가 1970년 '누명'과 '선생님 기행'으로 '현대문학'의 주연을 맡아 등단한 이후 1970년대에 크게 평단의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한편 한편 공들여 써낸 작품들의 모음이다. 이 소설집을 면밀히 통독해 보

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역사의 파행성을 넘어서는 결연하고 완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박토의 혼', '청산대', '메아리 메아리', '회색의 땅', '시간의 그늘' 등을 들 수 있고, 산업사회의 자기증식과 비정함에 맞서는 작품으로 '동백', '빙하기', '마술의 손' 등을 들 수

자면 별다른 이의없이 분단모순과 계급모순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조정래의 이 소설집은 그 두가지 주요모순의 세화들을 구체적으로 해부하는 소설들로 채워져 있다.

여기의 작품들이 거느리고 있는 스토리의 재미, 인물의 생동감, 사건전개의 사실성, 메시지의 무게, 토속적인 정서, 배경의 객관성 등 여러 항목들은 조정래라는 작가를 떠받쳐 준 소설작법의 탄탄한 디딤돌이 되어 왔다. 그로부터 '태백산맥'에 이르는 20년의 대장정은 조정래 개인의 성숙이자 우리 소설문학의 성장사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기간이다. 중·단편 위주의 시대에서 대하장편의 시대로 이행한 결과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 문화의 어제와 오늘, 더 정확히는 작가 조정래의 어제와 오늘을 해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작품들을 정치하게 읽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김중희
(문학평론가·문리대 강사)

'태백산맥'의 문학적 바탕된 초기작품집 분단·계급모순 걸머진 민중의 삶 그려

면 어떻게 하여 지금의 중진작가 조정래가 가능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각기의 작품들이 시대사의 질곡을 이기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속해 오는 민초들의 삶을 매우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

있다. 9편 중 하나 남은 '어떤 술거의 죽음'은 좀 색다른 작품으로서, 체험을 통해 얻은 판단에의 확신을 묵묵과 맞바꾸는 한 화가의 예술혼을 그려낸다.

길지 않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주요한 민족적 모순점을 논거하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미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정성과 지혜를 다했던 선조—
철의 보석이라는 특수강 산업에 전념,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삼미. 삼미는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노력으로 우리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1989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ATLAS/AL TECH 철강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특수강 전문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삼미는 화인세라믹스, 칼슘비소반도체, 항공산업용 2천년대를 내다보는 첨단 영역에 과감히 도전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미의 기술과 정성—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은 삼미의 결정체입니다.

삼 미

계열사: (주)삼미 | 삼미중합수소 | 삼미금속 | 삼미정공 | 삼미유동 | 삼미기산산 | 삼미이온 | 삼미화인세라믹스 | 삼미이온 | 대명특재공업 | 삼미문화재단

